

1

2019



양양소식

Vol. 284





신년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3만 군민 여러분!

2019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기해년 새해에는 우리군민 모두가 행복한 한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뜨거운 관심과 힘찬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근 우리 군을 둘러싼 주변 여건들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동해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수도권과는 90분 내에 진입할 수 있는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난 12월 26일 착공식을 갖은 동해북부선철도와 동서고속화철도는 2025년을 전후해 개설했을 계획에 있습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향후 20년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2035년 양양군 기본계획'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체계 개선 및 특화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젊은 창업기회의 도시, 최적의 정주여건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종합터미널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시내권과 낙산권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인구 유출을 적극 방어하는 한편, 거점전략을 통해 도시확장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다음은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의 완성입니다.

남대천 생태복원과 다양한 수변공간 조성을 통한 우리군의 경제의 중심이 될 핵심사업입니다.

이와함께 우리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서핑입니다.

서핑은 단순히 즐길거리가 아닌 제조·관광·스포츠 등을 아우르는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군민여러분!

지난 한 해 가장 큰 아쉬움은 오색케이블카사업의 부진과 플라이강원의 항공운사업면허 발급의 무산이었습니다.

초부득삼(初不得三), '첫 번째 실패한 것이 세 번째는 성공한다.'는 뜻으로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군민여러분들의 성원과 결집된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군은 변화와 성장의 골든타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화합과 결속, 관용과 포용이므로 산적한 과제들을 헤쳐나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500여 공직자 모두는 보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2019년!

군민 모두가 행복한 '명품도시 양양건설'을 위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19. 1. 1.

양양군수 김진하



새해에는 반가운 소식만
가득하세요

의기양양

04 군정브리핑

- 04 양양군 2019년도 기해년 새해, 양양군정 힘찬 시작
- 05 2019년 세 개의 성냥에 불씨를 붙이다.
 - 종합터미널 이전과 역세권 도시 개발사업
 - 서핑 산업화 사업 추진
 -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
- 08 2018년 주요 수상내역
- 09 양양 지경관광지 조성사업 본격 추진
추운겨울을 녹이는 따뜻한 기부

10 의정소식

2019년에는 더욱 열린 의회로 나아가겠습니다.

희망양양

- 12 기획취재 믿고 맡기는 공공 어린이집 건립
- 14 ISSUE & PEOPLE
기타동아리 '해당화 울림'의 울림있는 이웃사랑
- 16 숨어있는 향토사 이야기
양양의 3·1만세운동



오감양양

- 18 SNS 기자단 소식
오색에 눈이 오면.. 내 삶에 추억이 쌓인다.
- 19 이게 최고자니 표고버섯 '발효장국', '국물생각'
- 20 발걸음 촌촌, 마을가는길 강현면 전진 1리
- 22 맛있는 양양여행 양양 포구 따라 카페에서
조선시대 덕담을 나누다.

열린양양

- 24 책이야기 음식의 언어 / 이달의 신간
- 23 정보꾸러미 추천 일자리
- 24 알림마당 공공기관 행정정보
- 28 공익광고



양양소식 · 284호

| 발행일 2019년 1월 1일 | 발행인 양양군수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www.yangyang.go.kr

양양군정소식지 「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입니다.
구독은 jsnj4@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2019년 다시 처음처럼 초심의 열정으로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양양군 2019년도 기해년 새해, 양양군정 힘찬 시작

새해 첫 날 현산공원 충혼탑 참배 실과소 주요업무 보고 및 읍·면 순회 군정설명회 개최 예정 2019년 업무 추진을 위한 소통과 공감, 추진동력 공유

2019년도 기해년 새해, 양양군정도 힘차게 시작됐다. 1월1일 오전 10시 김진하 양양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과 양양군의회 의장 및 의원은 현산공원 충혼탑을 찾아 참배하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김진하 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해 동안 뜨거운 관심과 힘찬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6개월동안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플랫폼, 양양시대 개막’이라는 군정비전을 세우고 분야별로 추진해야 할 계획들을 준비하였으며, 2019년 민선7기는 다시 처음처럼 초심의 열정으로 출발하고자 한다” 며 “종합터미널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한 도시확장,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의 완성, 서

핑의 산업화 등 주요 시책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2019년도 양양군 새해 업무보고는 1월 8일부터 각 실과와 사업소를 순회하며 2018년 성과, 2019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방향, 현안사업추진 상황 등을 논의 할 예정이며, 1월29일부터 31일까지 읍·면사무소를 순회하면서 이장, 부녀회장,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설명회를 개최하여 2019년 군정 주요시책과 역점사업을 소개하며 군정에 대한 질의답변과 다양한 주민건의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2019년 새해 명품도시 양양 도약을 위한 희망의 날갯짓은 계속 되고 있다.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플랫폼 양양시대 개막

2019년 세 개의 성냥에 불씨를 붙이다

양양국제공항, 동해·동서 T자형 고속도로, 양양신항만, 동해북부선 등의 기간교통망을 통해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플랫폼’ 양양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되었다. 2019년 우리군은 이러한 정부정책과 시대상황에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정주인구 편의를 위한 생활인프라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도시확장의 불씨가 될 세 개의 성냥에 주력하고자 한다.



종합터미널 이전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우리군은 2008년부터 공영여객터미널 이전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여 2011년 부지선정을 마치고 여객터미널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구)동해고속도로 부지가 용도폐지 되면서 부지 매입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으로부터 입지협상 및 검토를 지속하고 있다.

여객터미널 이전사업은 양양읍 시내권과 낙산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양양-낙산축을 형성하게 되며 송암, 청곡, 포월, 조산 일대의 방대한 토지의 규제를 풀어낼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7번국도와 철도노선이 평행교차하는 지역으로 향후 국가SOC 사업 및 역세권 개발 등의 발전 잠재력이 큰 대표 성장지역이다.

또한 종합운동장과-철길-7번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개설사업의 진행으로 도심의 외곽축이 형성되고 있다. 이 도시계획도로는 향후 여객터미널을 거쳐 낙산의 공원 해제지역과 연결되어 도시발전의 도화선 역할을 하며 우리군 성장의 새로



운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종합여객터미널 이전은 단순히 하나의 여객시설을 이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인근에 유통시설 계획과 맞물려 추진하여 인적수송뿐만 아니라 물적 수송을 담당하는 도시의 허파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종합운동장 부근의 공공주택단지 건설로 활기를 찾아가는 신도심 지역과 기존 도심에 남대천 르네상스 및 전통시장 활성화로 새운을 입은 구도심, 이 두 개의 중심을 견고하게 연결하여 새로운 도시성장의 삼각축이 형성 될 것이다.

여객터미널 이전 사업은 도시의 확장을 판가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고 이 사업의 완성으로 양양의 도심은 양양-송암-종합운동장을 잇는 골든트라이앵글을 구축하여 유기적이고 조화롭게 도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시스템 도시가 될 것이

다.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와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각종 개발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현재, 우리군이 한발 더 나아가 미래 세대의 먹거리를 위한 복합 신항만 건설, 통일세대를 위한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사업까지 폭넓게 진행하기 위해선 토지규제를 풀어낼 명분과 시기가 존재하는 것이며 올해 2019년 바로 지금이 골든타임에 접어든 것이다.

서핑1등 도시 입지 굳히기 등 4가지 서핑 산업화 사업 추진

2019년은 서핑을 단순히 '파도 타는 놀이다' 로 인식되는 수준을 뛰어넘어, 제조, 관광, 스포츠, 문화, 4차산업혁명을 연결하는 우리군의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는 첫해가 될 것이다.

1995년 제주도 중문해수욕장에 첫 서핑클럽이 생긴 이래로 양양은 부산을 제치고 국내 최고의 서핑 명소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서울-양양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서핑 1일 생활권"이 되면서 주말이면 1000명이 넘는 서퍼들이 양양의 파도를 찾아 오고 있다.

2019년에는 서핑의 성지답게 서핑과 관련된 산업이 양양군의 대표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네가지로 분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 서핑 1등 도시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사업을 지원한다. 국토부 공모사업인 서핑비치로드사업과 해양수산부 해양레저 특화사업이 소조롭게 진행되도록 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좋은 설계와 디자인을 그려낼 것이다. 또한 서핑페스티벌은 규모를 확대하여 중앙부처에서 지원하고 외국선수들이 참여하는 그랜드대회로 기획 할 예정이다.

둘째, 서핑에 관한 인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서핑이 2020년 도쿄 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지만 이것을 준비하는 국내 저변이 미약한 수준이다.

양양군은 서핑의 꿈나무를 키워내는 "서핑산실" 역할을 할 것이다. 싸이클팀처럼 양양군을 대표하는 팀창단도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기존의 초종교 서핑교실을 확대하는 한편 서핑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서핑동아리 활성화, 가족과 함께하는 서핑교실 등 다양한 체형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양양군민이라면 누구라도 손쉽게 서핑을 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아 갈 것이다.

셋째, 서핑과 기존 산업을 연결하여 새로운 형태의 신성장 산업을 창출하여 이를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



는 성과를 낼 것이다. 서핑보드 제작소 유치와 같은 단순 기업유치는 물론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스마트 장비와 서핑을 연계하는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주거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투자선도지구 조성계획을 중앙정부에 제출해 국비확보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넷째, 서핑의 문화사업화를 통해 산업을 확산 할 것이다. 서핑이 주는 활력있고 도전적인 이미지를 양양의 도시이미지로 결합하여 양양이 "젊은 도시, 살아있는 도시"라는 도시마케팅을 펼쳐 나갈 것이다.

이미 서핑을 주제로 드라마 제작, 영화제 등이 진행되고 있고, 이에 더불어 서핑 캐릭터 상품 개발 및 활용으로 확대하고 패션, 요리, 드론 등 서퍼들과 연관되는 테마를 발굴하여 연계할 것이다.

그간 매니아층을 중심으로 일반인들에게 전파되었던 서핑이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엘리트 선수 육성을 위한 훈련단지 입지에 국가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입지선정 등의 사전 준비를 하여 국가 훈련단지의 양양유치에 적극 노력 할 것이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남대천 르네상스사업’

남대천 르네상스사업은 단일 사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복합 프로젝트 사업이다. 크게 남대천 상류 생활하수 처리, 아도 및 보 개선, 토속어종 방류 등의 생태복원사업과, 하천 내 호안정비와 문화·체육 등 다양한 수변공간 조성을 포함한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그리고 웰컴센터, 다목적광장, 군도4.5호선 개설 등 남대천 주변지역 연계개발 사업의 3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그동안 이 사업의 근간이 되는 ‘하천정비사업’의 여러 절차와 규제를 풀어내 모든 협의와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남대천르네상스 사업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최우선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더불어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있다.

남대천 르네상스사업은 우리군의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자 거점강화 사업이며, 도시재생사업이자 경제 활성화의 구심점이 되는 사업이다. 도시재생 측면을 보면 아직 초기단계지만 지중화사업을 통해 도로가 눈에 띄게 확장되었으며, 교통소통도 원활해졌다. 2019년 중심 시가지의 지중화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도심 경관성이 더욱 크게 향상되어 쾌적함에서 오는 마음의 여유를 한층 더 느끼게 될 것이다.

남대천 르네상스사업의 대표주자인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자동차 중심의 중앙도로에서 벗어나 보행자 중심의 삶터, 일터, 놀이터, 쉼터로서의 기능을 선보일 도시계획 시설로 거듭날 것이다. 웰컴센터는 나들쉼터(1층), 나들마켓(2층), 작은 영화관(3~4층)을 배치시켜 주민의 문화생활을 유쾌하게 하고 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먹거리와 볼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할 것이다. 특히 전통시장의 상업생태계와 적절히 조화되면서 모든 군민들에게 사랑받는 열린 문화·상업 공간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한편 양양 남대천 일원 5만8000㎡ 부지에 길이 1km, 폭 10m의 한국형 자연산란장과 함께 연어 생태연구·관리동, 캠핑장,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연어 자연 산란장 조성’사업이 확정되어 하천주변의 인프라를 구축, 문화·교육·생태시설이 서로 어우러져 남대천과 주변이 문화가 살고 생태가 보전되어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025년은 연어 박물관이 준공되고 연어 자연산란장 일대를 생태공원, 체험·교육, 음식문화, 레저시설, 캠핑장 등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연어 자원증대 및 관광 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Tel. 033-670-2101

2018년 양양군 열심히 달렸습니다

2018년 분주함 가운데에서도 가슴 따뜻한 한해가 되었다. 넉넉하지 않은 경제상황에 인재육성장학금은 67억원을 넘어서었으며,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연탄을 나르던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온정을 잊을 수 없는 한해이다. 또한 개청 이래 처음으로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글로벌 축제로 성장한 송이축제와 연어축제는 우리군의 브랜드 가치와 품격을 한 단계 높여주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과 플라이강원 항공운송사업 면허는 군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열정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아쉬움이 남지만 어려움에 부딪칠수록 우리 군민 모두는 하나 된 마음으로 이겨내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보여주는 한해였다. 2019년에도 우리군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3만 군민, 500여 공직자 모두가 도끼를 갈아 비늘을 만드는 마부위침(磨斧爲針)의 마음으로 명품도시 양양을 향해 함께 달려 나갈 것이다.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가'등급 등 각 분야 많은 수상 성과 달성

우리군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전성과 효율성 책임성 등 3개 분야 22개 지표를 활용, 5개 등급으로 구분 실시한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

과 우리군은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등급을 받는 등 2018년도 우리군은 많은 부분에서 빛나는 결과를 이루어냈다.

■ 주요 수상내역

주요 평가	주관기관	평가 결과
도로명주소 사용활성화	행정안전부	우수(국무총리상)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평가	행정안전부	우수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여성가족부	우수
우수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청	우수 기관표창 우수/2백만원
지방규제개혁 평가	강원도	우수/2백만원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강원도	최우수/9백만원
해양수산시책(기관)	강원도	우수/강원상품권200천원
치매관리사업/보건 및 건강증진사업	강원도	우수/40만원

■ 주요 공모사업 선정 실적

공모사업	주관기관	사업비
서핑비치로드 조성사업	국토교통부	2,089백만원
창조적마을만들기(간교리,사천리,포매리)	농림축산식품부	2,000백만원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물갑리, 수리)	강원도	600백만원

양양 지경관광지 조성사업 본격 추진

관광호텔, 프리미엄 아울렛과 향토음식점, 수변공간등 휴양문화시설, 녹지 등 조성

체류형 복합 해양관광지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지경관광지 조성사업이 국공유지·도유지 매각 및 문화재발굴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지경관광지는 현남면 지경리 5-1번지 일원 15만7,699㎡에 550억여원이 투입돼 관광호텔, 프리미엄 아울렛과 향토음식점, 수변공간 등 휴양문화시설, 녹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강원도가 2016년 9월에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고시가 되었고, 국공유지는 지난 2017년도 6월에, 도유지는 2018년 12월에 투자업체(주)LF패션(구 LG패션), (주)LF네트웍스에 매각이 완료 됐다.

특히, 공공편익시설인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2018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올해 3월에 완료할 계획이고 4월부터는 20억원의 공사비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투자업체(주)LF패션, (주)LF네트웍스에서는 실질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실시설계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강원도·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중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변경)등 관련인·허가를 마무리하고 2020년 3월에 본격적인 공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지경 관광지는 동해 바다와 접해 있어 해양레저(서핑,해수욕) 활동을 할수 있고, 프리미엄 아울렛몰(스트리트 몰)을 건립하여 휴양과 쇼핑을 같이 즐길 수 있는 복합해양 관광지가 조성되게 되며, 주민의 우선 고용 및 편익을 우선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된다.

문의 문화관광체육과 관광개발담당 Tel. 033-670-2725

추운 겨울을 녹이는 따뜻한 기부

어려운 형편에도 장학금을 기탁하고 남몰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따뜻한 기부가 이어져 한파 속에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양양읍에 거주하는 김옥녀(1940년생) 할머니는 노인일자리 참여 수입과 딸에게 지급되는 장애연금 등을 모은 100만원을 지난 12월 6일 인재육성장학금으로 기탁하였다. 이 돈은 중증 장애인이며, 기초수급자인 딸에게 지급되는 장애연금과 생계비를 조금씩 모아온 것으로, 할머니가 노인복지관 청소일을 하며 모은 노인일자리 참여 수입도 보탬이 됐다. 할머니는 2년 전에도 노인복지관에 성금을 기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은 오래전 사망했으며 현재 미혼인 막내딸과 같이 거주하는 할머니는 “딸로 인해 국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할 수 있는 한 조금이라도 그 빚을 갚고 싶어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훗날 딸이 홀로 남겨지게 될 경우 딸을 잘 보살펴 주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나부터 남을 돕는 일을 신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려운 형편에도 이웃을 먼저 생각한 김 할머니의 손길이 추운 겨울 우리지역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

문의 복지과 복지기획담당 Tel. 033-670-2291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의회, 실력으로 인정받는 의회, 2019년에는 더욱 열린 의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양군민 여러분!

제8대 양양군의회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새 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군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은 늘 양양을 향하여 응원을 아끼지 않는 출향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을 맞이하며 양양군의회는 더욱 열린 의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지역 현안을 더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지금 양양군은 큰 변화와 많은 기회 속에서 새로운 기반을 다져야 할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인구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시너지 효과로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우리군이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종합여객터미널 이전으로 도시 확장을 추진하고,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의 착실한 마무리로 도시 생명력을 회복하며, 서핑의 산업화로 앞서가는 관광휴양도시가 구현되어야 합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도 우리 모두의 큰 과제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소통과 화합이라는 큰 전제를 잊지 않고 군민의 목소리를 새겨 듣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양양을 상징하는 붉은 태양처럼 여러분 안의 뜨거운 꿈과 양양군이 펼쳐고자 하는 희망이 실현되는 2019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군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8대 양양군의회
의장 고 제철

제8대 양양군의회 의원들이 다짐하는 “2019년 이것만은 꼭 추진하겠습니다!”

**여성과 아동의 소외감이 없도록
섬세하게 살피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서비스 질이 높아지도록 종사자 처우개선과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양양을 만들기 위해 대안 마련에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로등 관리, 민원불편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갖고, 남대천 제방도로와 낙산지구를 사랑받는 관광자원이자 생활공간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귀선 부의장

**4선의 경험을 살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김우섭 의원

서핑의 최적지로 각광받는 현남 죽도해변을 중심으로 양양군이 서핑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잘 챙기겠습니다. 오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양양공항 활성화, 관동대 활성화 방안 등 우리군 현안과제들을 잘 모니터링해서 2019년에는 발전된 모습을 이끌겠습니다.

**공직, 의정, 봉사경험을 다양하게 살려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에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지만 손길이 뻗치지 않았던 문제들을 보살피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어민 소득증대, 주민복지 접근 방식 개선, 주민편의시설 이용 활성화 등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택철 의원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행동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김의성 의원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눈으로 지역의 문제들을 짚어가겠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 프로그램의 개선, 축제·문화행사 활성화, 교통 불편 해소 및 도로 불편사항 개선 등 주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짚어내고 행동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참여를 통해 주민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열린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실질적인 주민공청회를 통해 양양군의 정보를 공유하고 주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로 업체에 공정한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녹색경제, 청색경제 등 변화하는 트렌드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주민과 행정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조율해
지역발전에 도움 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종석 의원

주민의 입장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기고, 집행부의 추진상황과 현실적인 어려움도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으로 주민과 행정의 입장을 조율하여 협치된 힘으로 지역발전을 이끄는 데 보탬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의 앞서가는 트렌드를 모니터링 하여 우리군의 적재적소에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은 보육 공공성부터! 믿고 맡기는 공공 어린이집 건립한다

신생아 감소율이 매년 10% 내외로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 2017년에는 도내 신생아수가 역대 처음으로 1만 명 선이 붕괴되면서 저출산 공포는 심화되고 있다. 이미 저출산은 국가적 의제로 다뤄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는 1월 1일부터 도내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월 70만원씩 지급하는 육아 기본수당을 전국 최초로 도입할 계획이다. 인구 절벽 위기에서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이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양양군은 도내에서 처음으로 지역 어린이집을 통합한 보육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공공복지를 제공해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지는 마을에서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0.95 명을 기록했다. 실상 우리 군의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마을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가 어려워진 것은 어제 오늘 일 이 아니다. 2017년에 태어난 신생아는 95명으로 전년 대비 28.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출산의 영향으로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 어린이집 1곳 이 휴원을 결정했다. 국공립과 법인, 민간 등에서 운영하던 10

곳의 어린이집 중에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9곳 으로 이마저 원아수가 부족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들어 어린이집 학대와 비리 유치원 문제 등이 전 국민적 인 이슈가 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마저 안심하고 아 이를 맡길 수조차 없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저출산 극복의 장애가 되고 있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마을로

인구 절벽은 현실이 됐고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출산 장려 위주 정책에서 육아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공공 보육 방안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은 도내에서 처음으로 지역 어린이집을



통합해 보육 혜택을 강화하기로 하고 지난해 보육시설 관련자와 담당직원들이 성공사례로 알려진 일본 돗토리현에 공공 보육시설을 벤치마킹하고 왔다.



일본 돗토리현에 공공 보육시설

일본 돗토리현의 다이센정은 동해와 접해 있는 인구 1만 6천 명의 시골 소도시이지만 최근 도시에서 이주하려는 이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곳이지만 2012년 보육원 3곳을 통합해 공립으로 운영하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통합 보육원이 건립된 이후 인구 감소폭이 현저히 줄어든 것이다. 다이센정은 보육원의 공립화를 통해 보육교사는 정규직으로 보장하고 연간 14억 원의 운영비 전액을 부담함으

로써 안정적으로 보육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일본 내 다른 지역에서는 맞벌이 유무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지만, 다이센정은 모든 자녀에게 무상지원하며, 예방 접종에 대해서도 자치단체가 50%를 지원한다. 파격적인 지자체의 맞춤형 정책으로 공공성이 강화된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는 젊은 세대들을 유입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고 있었다.

아이 키우는 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집니다

저출산 문제에 따른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으로 우리 군은 아이를 키우는 일에 공공성을 최대한 강화할 계획이다. 군유지에 현재 운영 중인 공립어린이집 3곳을 합친 통합 어린이집을 새로 건립할 예정이다. 일본 내 성공적인 통합 어린이집 운영 사례로 꼽히는 다이센정 보육원을 모델로 해서 군이 운영을 맡게 된다.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면 지역의 미취학 아동 180여명에게 공공 보육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편하게 맡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보육비의 대부분은 군이 지원하고 야간에도 문을 열어 보육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통합 어린이집 운영은 부모들의 보육비 부담을 크게 줄이고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저출산을 극복할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보다 나은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아직 많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일에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제 우리는 인구 절벽에 놓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을보다 더 큰 자치단체가 함께 할 것이다.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은 도시, 내 아이와 함께 살고 싶은 도시를 부모와 마을, 양양군이 함께 만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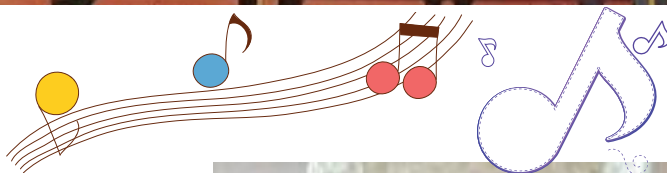
〈글·사진 : 편집부〉

‘우리는 양양의 연예인’

기타 동아리 ‘해당화 울림’의 울림있는 이웃사랑



“그대의 연예인이 되어 항상 즐겁게 해 줄게요,
그대의 연예인이 되어 평생을 웃게 해 줄게요,
언제나 처음 같은 마음으로 난 그대의 연예인”
가수 ‘싸이’의 노래인 ‘연예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연예인이 되겠다는 노래인데, 기타 동아리 ‘해당화 울림’은
자타가 공인하는 ‘양양의 연예인’이다.
기타 연주를 즐기고 또한 봉사활동과 지역 행사에 초청돼 흥겨운
무대를 꾸며 함께 노래하는 ‘지역주민들의 연예인’이고자 한다.
2019년에도 ‘해당화 울림’의 즐거운 공연을 기대한다.



문화학교 졸업생 동아리 활동으로 이어져

해당화 울림의 첫 만남은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기타반에서 시작되었다. 2012년 기타 초급반 11명으로 시작해 중급반을 지나 동아리 ‘해당화 울림’이 만들어지면서 더욱 돈독한 관계가 되었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 활동과 공간이 많지 않은 양양에서 양양문화원의 문화학교는 다양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돼 인기를 모은다. 사물놀이, 한국화, 서예, 수채화 그

리기 등 11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매년 3월에 개강해 12월 까지 활동하지만, 처음 입학했을 때와 달리 점점 참여가 줄어서 졸업할 때면 한두 명 남는 것이 고작이다.

하지만 기타 동아리는 처음 입학했을 때, 팀원이 졸업 후에 동아리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으니 그 열정은 대단하다. 지금도 매주 수요일이면 기타를 배우고, 또 연습을 하느라 3시간씩 몰두하는데, 봉사활동을 위한 공연을 연습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만 즐거울 수 없다! 봉사활동으로 즐거움을 더하다.

‘해당화 올림’은 단순히 기타 연주만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다. 양양의 연예인답게 가수 지망생이었던 김병삼 회장이 기타 연주뿐만 아니라 뛰어난 노래 실력과 사회자로서 공연을 즐겁게 진행한다.

“저희는 즐겁게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을 모아서 노래집을 따로 만들었어요. 공연인데 기타 연주만 몇 곡 한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반주기도 가지고 가서 즐겁게 같이 노래하고 즐기다 보면 한두 시간은 훌쩍 넘어 버리죠.”

처음 요양원에 공연을 갔을 때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던 어르신들이 세 번째 갔을 때부터는 함께 노래도 부르고 즐겁게 보내게 되었다.

이처럼 공연을 위한 실력을 갖추기 위해 매주 수요일이면 3시간씩 수업과 연습을 하고, 함께 점식 식사를 하며 팀워크를 다지고 있다. 50대에서 70대로 연령층이 다양한 팀인데도 불구하고, 즐거운 기타 연주와 함께 봉사하는 즐거움으로 몇 년째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팀의 막내인 양승숙 총무는 소위 언니, 오빠들을 모시고 공연준비부터 공연후에는 앨범을 정리하는 등 갖은일을 마다하지 않는데도 기타동아리 활동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한다.

“몇 년째 활동하다보니깐 연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송년회를 해요. 가족들도 좋아하고 취미 활동도 하면서 봉사도 하니 정말 즐거워요.”

지난 2015년부터 활동 사진첩을 만들어 잘 보관하고 있는 것도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팀원들의 추억이자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언제 또 와?”, 또 올게요.

요양원에서 공연을 하고 돌아올 때면 어르신들이 언제 또 오냐고 묻는다. 이럴 때면 보람도 있지만 책임감도 크다. 스스로 좋아서 하는 일인데 이웃을 위한 봉사로 이어지고 더불어 행복하게 즐거움을 나누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기타 동아리 ‘해당화 올림’의 11명의 팀원들의 기타 선율에 흐르는 이웃사랑의 리듬이 흥겹고 즐겁다.

‘우리는 양양의 연예인!’

〈글·사진 : 편집부〉





3.1운동기념비(양양읍 현산공원)

양양의 3·1만세운동(이석범과 임천리)

2019년은 기미만세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19년 4월 4일 양양 장날에 일어난 양양3·1만세운동은 올해로 100주년이 되는 해로, 양양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에서는 10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당시의 3·1만세운동에 관련 내용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양양지방의 3·1만세운동은 독립선언서의 입수가 단초가 되었는데, 하나는 유학자인 설초 이석범(雪樵·李錫範) 선생에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양양 감리교회 조영순 전도사의 외동 딸인 조화벽(趙和璧)(개성 호스돈여학교 재학) 성도가 버선목

에 숨겨 대포항으로 들어왔다.

이석범 선생은 당시 도천면 중도문리(현재 속초시)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곳 만세운동은 동생인 이국범(李國範)과 아들 이재훈(李載勳·能烈)에게 앞장세우고, 도천면은 중도문리의 김영경, 이종국을, 강현면은 적은리의 장세환 등을 책임자로 맡기고, 본인은 고향인 함평이 씨(咸平李氏) 집성촌인 임천리에 머물면서 양양의 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쌍천서숙(학교)을 설립하여 후진 양성에 힘쓰다.

이석범 선생은 조선조 1545년 양양부사를 지낸 이춘령(李春齡)의 10대 손이며, 또한 1808년 부임한 양양부사 이광식(李光植·初名 英植)(현산공원 부사 석조비 23위 중 유일한 불망 양각철비의 후손이다. 1859년 양양면 임천리 148번지에서 출생하였다.

1884년 25세에 초시에 합격하고 1899년에는 중추원 의관을 거쳐 1905년 군부주사 겸 군기창기수에 임명되어 국정 심의



쌍천서숙(도문면 중도문리)



임천리 전경

에 참여하였으나, 1910년 일제의 잔악무도한 병합 통치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였다.
그 후 1913년 도천면 중도문리에 쌍천서숙을 설립하여, 후진 양성과 항일 애국정신 함양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1919년 1월 21일에 고종 황제가 독살되었다는 소문이 나돌자 이종만

(李種萬)을 위시한 유림 20여 명이 2월 20일 밤 현산공원에 모여 망곡단을 설치하고 한성 쪽을 향하여 망곡제(望哭祭)를 올리며, 고종의 인산(因山)에 이석범 선생과 향리 10여 명이 참례하기로 결정하였다.

양양3 · 1만세운동은 임천리에서 시작되었다.

이석범 선생은 고종의 인산에 참례 후 독립선언서를 3월 말 몰래 숨겨와 임천리에서 머물면서 4월 4일 양양 장날 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그러니까 사실상 양양3 · 1만세운동의 진원지가 임천리라 할 수 있다.

사업가로 신망이 높은 이 마을의 최인식(崔寅植)(양양보통학교 1회)은 양양보통학교 출신의 각 마을 구장들과, 양양 감리교회 청년부의 김필선(金弼善), 김계호(金啓鎬)와 독립을 열망하는 지역 유림 등과 규합하였다.

그리고 문중인 이교완(李敎完), 이교정, 이건충 등 몇 집에서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몰래 만들던 중 4월 3일 밤 군수 이동혁과 군속 심운택이 급습하여, 이석범 선생과 마을 주민 22명이 체포되고 태극기 374매가 압수되는 사태가 발생한 마을이다. 그러나 다음 날인 4일 양양 장날에는 각 마을마다 계획대로 수천여 명이 장꾼을 가장하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

서 일본 경찰에 항거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시작한 만세운동은 6개면 82개 동리의 남녀노소 6,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4월 9일까지 6일 동안 계속되어, 13명의 사망자와 70여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구금 또는 수형자만도 172명 그리고 수없는 사람이 태형을 받아 전국 지방에서는 가장 극렬하게 일어난 기미만세운동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석범

오색에 눈이 오면...내 삶에 추억이 쌓인다



설악 단풍이 끝자락에 이르면, 곧 설화로 이어진다.

가을엔 오색단풍이 천하의 절경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뽐내지만, 겨울엔 눈으로 세상을 덮는다.

올해도 우리에게 감동을 전해 줄 오색 설경을 기다려본다.

2019년 눈내리는 오색에서 추억을 쌓아보자.

하나. 눈이 내리면 나도 모르게 생각 나는 그곳 굽이굽이 오색령에 오른다.

그곳에서 만나는 한계령 휴게소

건축가 김수근(1937~1986)이 설계해 1982년 한국 건축가 협회 대상을 수상할 만큼 이색적이고 멋진 자태를 뽐내고 있는 한계령 휴게소에 따뜻한 커피 한잔을 들고 겨울바람을 맞으며 설경을 즐기곤 한다.

둘. 가을이면 엄청난 인파가 몰려드는 그곳 흘림골 가을 못지 않은 겨울설경을 자랑한다.

눈이오면 흘림골의 설경을 즐겨보자.



셋. 오색의 설경을 보았다면 이번에는 피로를 풀어보자.

추운겨울의 진리, 따뜻한 온천이다. 오색탄산 온천은 누구나 부담없이 이용하는 대중탕으로 탄산 온천과 알칼리 온천을 즐길 수 있다.수온 27도로 비교적 낮지만 톡톡 쏘는 탄산의 효과로 몸무게 금세 후끈거린다.

알칼리 온천은 피부에 닿는 매끄러운 촉감이 특징이다. 탄산과 중탄산, 칼슘, 철 등 몸에 좋은 성분이 알차게 담긴 오색탄산온천은 신경통, 관절염, 위장장애 등 다양한 질환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알칼리 온천을 즐긴 후 탄산 온천으로 마무리하며 피로를 풀어본다.



넷. 시원한 오색약수 한잔과 든든한 약수돌솥밥 한 그릇

마치 탄산음료처럼 짜릿한 오색약수 한잔으로 갈증을 해소해 본다.

약수로 시원하게 목을 축였다면 이번에는 약수돌솥밥을 맛볼 차례이다.

맛과 영양을 골고루 갖춘 약수 돌솥 밥 한 그릇과

구수한 된장국에 맛 갈 나는 산채반찬들을 더하니 입안에 풍미가 가득하다.

이미 첫눈이 내렸지만 또 다른 눈이 기다려지는 이유 중 하나..

오색에 눈이 내리면 ... 내 삶에도 추억이 쌓이기 때문이 아닐까....올해도 오색의 겨울을 즐기고 싶다..

(2018년 겨울 사진입니다.)



더 많은 소식은 양양군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likeyyang> 와 양양군 공식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likeyyangyang> 에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글 · 사진 : SNS 홍보기자단 안영국

이기(이게) 최고자니! 표고버섯 ‘발효장국’, ‘국물생각’



건강하고 재미난 양양버섯 이야기

전국최고의 송이버섯 생산지인 양양은 84.3%가 산림이며, 해안가부터 설악산·점봉산·오대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까지 동서고지형을 이루고 있어, 표고와 느타리 등 다양한 버섯을 생산하기에 좋은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최고의 버섯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다. 또한 따뜻한 겨울날씨 덕분에 표고버섯은 난방 장치가 없어도 자연 발생이 가능하며, 여름철은

시원하고 산에서 불어오는 계곡풍에 의해서 고품질의 버섯을 연중 생산 할 수 있는 천혜의 기후 환경을 자랑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버섯생산지의 특화된 지리적 우위와 브랜드를 활용해 양양군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기능성버섯 육성 사업을 통해 양양의 가공업체에서는 고품질 버섯 가공제품들이 지속적으로 발굴 출시되고 있다.

사계절 버섯을 즐긴다

건강과 맛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버섯너비아니,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천연조미료 표고버섯가루, 버섯의 향과 질감을 느낄 수 있는 건버섯세트는 양양물에서 만나 사계절 버섯을 즐기고 있다. 이번에는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여 한 걸음 발전한 버섯 가공상품이 출시되었다.

찬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이면 생각나는 뜨끈한 국물! 멸치, 표고, 다시마를 넣고 팔팔 끓여서 진하게 우려낸 엄마표 육수를 10분이면 똑딱하고 완성할 수 있는 저녁식탁의 구원투수! 양양 서광농협의 ‘국물생각’과 모든 요리의 끝판 왕 ‘발효장국’을 소개한다.

요리의 마침표를 찍다! 표고버섯 ‘발효장국’, 천연재료 ‘국물생각’ 다시팩

양양 서광농협동조합에서 표고버섯을 가공하여 다시팩 ‘국물생각’과 감칠맛을 내는 ‘발효장국’을 선보였다. 청정바다의 내음과 설악산에서 키운 표고버섯, 최적의 온도로 로스팅한 멸치와 100% 국내에서 찾고 엄선한 천연재료를 이용하여 육수의 황금비율을 맞춰 국물요리에 감칠맛을 더해주는 건강한 웰빙 감미료 이다. 국물용 간편 다시팩은 국수, 된장국, 어묵탕 등 각종 요리에 필요한 진한 육수내기에 안성맞춤으로 위생적인 제품 포장으로 보관 및 사용이 편하다.

또한 표고버섯 ‘발효장국’의 경우 국산 매추와 버섯, 야채를 함께 발효하여 더욱 깊고 구수한 감칠맛을 낸다. 국, 탕, 찌개, 전골 등 요리 밑국물로 일품이며 식물성 발효액과 쇠고기, 가스오부시의 풍미를 더해 2%부족한 요리의 맛을 완성 시켜준다.

시원하고 개운한 가쓰오 맛, 깊고 구수한 소기가 맛 2가지 중 취향에 따라 골라 국물 및 요리에 간편하게 사용 할 수 있다.



Tip 구입방법_서광농협 : <http://서광농협.com/> (문의 : 033-672-2952)
표고버섯 발효장국 - 625ml : 7,900원, 285ml : 3,900원
국물생각(20g*6팩) - 얼큰한맛 : 6,090원, 시원한맛 : 5,190원, 깔끔한맛 : 6,392원, 깊은맛 : 5,690원

村村

발걸음 촌촌, 마을가는길

강현면 전진1리

〈양양 소식〉은 2019년 1월호를 시작으로 양양군 소재 마을을 탐방한다.

주민 화합으로 탄탄한 마을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마을을 찾아간다.

낙산사와 오랜 역사를 함께 한 마을

‘앞나루터(前津)’로 불렸던 양양군 강현면 ‘전진1리’ 마을은 어업을 주로 하는 어촌이다. 하지만 전진1리라는 지명보다 ‘낙산마을’이라고 불리는 것은 1,300여 년 전 의상대사가 창건한 일출의 명소인 ‘낙산사’와 낙산해변이 있는 마을이기 때문이다.

낙산사 밑에 있다고 해서 ‘낙산사 마을’이라고도 불렀는데 오래 전부터 마을 주민들은 낙산사의 크고 작은 행사에 참여하여 온갖 일들을 도맡아 왔다. “낮에는 절에서 일을 하고, 밤이면 전진마을에 내려와 가족과 함께 살았다.”라고 하니 큰 절이 있는 동네답다.

지금도 매 월 첫 번째 월요일이면 낙산사 법회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고, 낙산사에서는 마을 어르신들에게 불자 카드를 만들어 생신을 축하해주고 있다. 국내 최고의 관광지인 낙산사와 낙산해변이 있어 관광지로 이름을 높이고 있는 전진1리다.



전진1리 전경

4계절 해양 관광 마을

전진1리는 양양군의 여러 마을 중에서도 규모가 큰 마을이다. 194개 가구, 511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어업을 주로 하는 마을이었지만 1980년대 낙산도립공원 지정 후에는 낙산해변을 중심으로 횃집과 숙박업 등 관광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절반 가까이 된다. 또한 어업 대신 35척의 낚시배를 운영하는 어촌 관광 1번지로 손꼽힌다.

양양의 4계절 해양관광지로 대표되는 전진1리는 매년 1월 1일 낙산사 의상대와 낙산해변 해맞이 인파로 활기가 넘친다. 그리고 봄에는 낙산사 꽃구경, 여름에는 낙산 해변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들로 북적거린다. 설악산과 오색령의 가을철 단풍 관광객과 겨울철에는 싱싱한 해산물을 맛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동해안 7번 국도의 으뜸 명소이다.



전진1리 골목벽화

마을 재생으로 마을이 다시 솟다

낙산사로 들어서는 입구 왼편이 전진1리 토박이 마을이다. 요즘은 골목마다 마을 벽화가 관광자원이 되어 관광객들을 모으는데, 전진1리도 골목 벽화를 비롯하여 상·하수도 정비, 오래된 집 개·보수 등 마을 재생사업이 한창이다. 낙산도립공원이 해제된 후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정비에 집중하고 있다. 6년 전부터 마을 이장을 맡고 있는 양운석 이장은 마을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애쓰며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마을공동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황당 재건을 위해 마을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2016년 건립했을 때 주민들은 단합된 마음으로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다. 이처럼 마을 주민의 단합을 돈독히 하며,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인회를 비롯하여 개발위원회, 부인회, 어촌계원들과 함께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에 늘 앞장서고 있다. 또한 마을 공동체 회의의 기록을 빠짐없이 남기고, 마을의 각종 사업 운영은 원칙과 투명성,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등 마을주민이 중심이 된 마을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노력끝에 '마을 자립도'를 높여 '잘 사는 마을 만들기'에 모범을 이루고 있다.



전진1리 성황당



전진1리 마을이 낙산사와 인연으로 살아오게 된 오랜 역사와 생활 속에 묻어나는 전통문화 등을 꼼꼼히 조사·연구해 낙산마을의 특성을 살린 축제도 구상 중이다. 천년고찰 낙산사의 유명세를 활용해 마을의 특징있는 이벤트를 마련해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한껏 발휘하고자 한다.

낙산사는 의상 대사가 '파랑새'에 이끌려 이곳까지 왔다가 절을 창건하게 되었다고 한다. '행복'을 상징하는 '파랑새'의 전설을 담은 낙산사처럼, 전진1리 낙산 마을도 파랑새가 날아오르는 '행복 마을'을 꿈꾼다.

〈글·사진 : 편집부〉

양양 포구 따라 카페에서 조선시대 덕담을 나누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신다고 하니...”



양양의 바다에는 남해나 서해처럼 보자마자 정이 든다는 꿈꾸는 섬마을은 없어도 맑은 대로, 흐린 대로, 더운 대로, 추운 대로 유려하게 기억되는 아득한 바다가 있다. 때론 자연과 전설이 한 호흡으로 흐르는 그 푸른 바다 빛만 봐도 이별처럼 아련해지기도 하고, 자취도 없이 사라졌던 꿈을 떠올리게 하는데, 그 바다에 서면 외로움도, 고독도 느끼게 되는 우리는 감당할 만큼 깊어져야 할 삶의 내용을 또 다시 담는다. 그 형상이 주는 양양의 푸른 바다만 보아도 좋을, 위안의 바닷길에서 무기력하게 내려놓아도 안기어 오는 행복이 있다.

깨닫는 순간이 오기까지 세상의 모든 언덕을 넘지 않아도 좋을 곳이다. 맛과 향에 충실하지 않아도 두렵지 않아 오래도록 기억되는 바닷길 따라 가시처럼 콕 박혀 있는 카페이다.

우리가 잘 몰랐던 양양의 포구카페

싸락 같은 별들이 날아들어 새롭게 밝은 날에, 간절한 마음들이 고독을 가둔 바다에서 숨죽여 청명한 새 빛을 기다릴 때, 커피 한잔 놓인 포구의 카페에서 기다리는 간절함도 같다.

따뜻한 커피 한 잔 놓인 카페의 창밖으로도 새롭게 시작되는 새날의 아침빛을 그리워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그리 많은 이들에게 이름값 할 만한 카페는 없어도 ‘이런 곳이 있었구나’ 싶은 은유적인 카페가 있다. 외형의 단순미에 백색의 미감을 담고 글라스 룸에서처럼 들여다보기도, 내다보기도 맑아 정암리 바다를 현히 마주 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커피 한 잔과 바다 사이는 있는 듯 없는 듯 투명한 유리벽으로는 저 멀리 하늘 품은 바다가 보이고, 울곧게 시작되는 새해에는 무엇을 그렇게 꼭 해보고 싶었던 결심의 공간이 되어줄 만하게 미려한 곳이다. 낙산에는 바다를 누워서 볼 만한 카페도 있다. 이대로 누워도 괜찮은 지 문득 겸연쩍는데 꿈꾸는 바다에 누운 듯 세상이 평등해지는 느낌이다. 잠들지 않은 밤을 기다리 듯, 광량의 바다에서 떠오르는 일엽의 청명한 아침 해를 누워서 본다니 신통할 만큼 색다른 느낌의 카페이다. 겨울바다가 딱 좋은 서핑의 핫플레이스 인구 죽도에 이르면 눈을 감아도 그리움처럼 바다가 그려지는 카페도 있다.

양양의 해안 중에서 모나지 않은 해안곡선이 가장 빼어난 이곳에서는 굳이 보려하지 않아도 보이는 데로 작품이 된다. 여유에 담긴 커피 한 잔보다 곡선에 담긴 푸른 바다가 더 여유로운 곳이다.



양양의 바다가 그토록 그리워지는 까닭

이처럼 양양의 바다에는 숨은 빛처럼 양양의 바다를 꿈꾸게 하는 우리가 잘 몰랐던 카페들이 있다. 양양 바닷길의 카페에서는 표류하는 행렬 같은 원칙도 있다. 볼 수 있는 크기만큼 가슴하여 바다를 그리워하지 않고, 꿈꾸어야 할 것들에 굳이 다짐을 하지 않고, 세상을 앞서려는 허세를 부리지 않으며, 탐욕 했던 어젯일의 과거에 아쉬움을 두지 않은 채, 이미 정해진 완료형으로 다짐하여 언어의 바다를 바라보는 풍습이다.

이것은 마치, 좋은 바램들은 미래형이 아닌 완료형으로 덕담을 건넸던 조선시대 때의 풍습처럼 말이다. 양양의 카페에서 나누는 언어의 절반 또한 완료형 덕담이라면 양양의 바다가 그토록 그리워지는 까닭마저 알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오늘 부디 따뜻한 커피 한잔 나눌 누군가에게 건넨 말이라면 알 수 없는 미래형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신다 하니 축하합니다” 라고 옛 선인의 지혜로 덕담주고, 양양의 바다를 품은 카페도 둘러 볼 일이다.

〈글·사진 : 강원도외식저널 대표 황영철〉



책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인문학”

지금 TV 어느 채널을 틀어보아도 우리나라 최고의 트렌드는 ‘요리와 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단순한 끼니 이상의 가치로 음식을 먹고, 맛집을 공유하고, 이를 요리하는 최고의 요리사들은 연예인이나 다름없는 스타가 된 지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이렇듯 음식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상황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잠시 눈을 돌려 그 음식을 먹는 인간에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 세상 그 어느 것도 인간과 관계가 없는 것은 없지만, 음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의 본성과 가장 가까운 삶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인간과 역사를 연구하기에도 아주 좋은 관점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음식이라는 주제는 많은 학문에 걸쳐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역사를 본다고 하면 지루하겠지만, 정말 고맙게도 글쓴이 덕분에 음식과 재료의 어원을 타고 속도감 넘치는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음식에는 음식의 맛도 있지만, 그 속에 담긴 이야기의 맛도 있습니다. 미식이란 자고로 오감으로 느끼는 것이 기본이지만 머리로 한 번 더 맛본다면 감각만으로는 알 수 없는 또 다른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 속 밑줄 긋기

『혁신은 언제나 작은 틈새에서 발생한다. 근사한 음식도 예외가 아니어서, 문화의 교차점에서 각 문화가 서로 이웃에게 빌려온 것을 수정하고 더 훌륭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창조된다.

음식의 언어 / 댄 주래프스키 지음
어크로스 / 2015



더불어 읽으면 좋은[冊]

- 우리 음식의 언어
한성우 지음, 어크로스, 2016
- 아트인문학
김태진 지음, 카시오페아, 2017
- 왜 맛있을까
찰스 스펜스 지음, 어크로스, 2018

음식의 언어는 이런 장소들 ‘사이’를, 고대에 일어났던 문명의 충돌과 현대의 문화 충돌을 들여다보는 창문이며, 인간의 인지, 사회, 진화를 알게 해주는 은밀한 힌트다.

추수감사절에 칠면조를 굽거나 결혼식에서 신랑신부에게 건배를 외치거나 어떤 종류의 포테이토칩 또는 아이스크림을 살지 결정할 때, 여러분은 음식의 언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다.』(p. 19)

(양양교육도서관 사서 이순형)

사서가 추천하는 이달의 [신간]



너에게만 알려 주고 싶은, 무결점 글쓰기

이은화 지음/ 피어오름 / 2018

우리에게 글쓰기가 필요한 궁극적인 이유는 그 과정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글을 쓰지 못하는 핑곗거리들을 하나 하나 진단하고 그에 맞는 처방과 글을 써야 하는 명확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현재 자신의 글쓰기가 어디쯤 와 있는지 정확한 진단부터 글이 책이 되기까지의 모든 여정을 담았습니다. 이 책에서 안내하는 대로 한 단계씩 즐기면, 어느덧 그 목적지에 다다른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차별은 세상을 병들게 해요

오승현 지음 / 개암나무 / 2018

이 책은 엄마가 아이에게 보내는 편지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차별 문제를 깊이 있게 살펴보고 그 해결 방법에 대해 고민해 봅니다. 아이들은 생활 속 사례를 통해 차별이 나는 물론, 부모, 형제자매, 친구 등 내 주위 사람들이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인식하며 더욱 깊이 공감합니다. 또 아이들이 차별과 편견의 시선을 거두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양양군일자리지원센터 추천 일자리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도시과
TEL. 033)670-2289
FAX. 033)670-2303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추천 일자리

양양군 여성회관 2층
TEL. 033)670-2890~3
FAX. 033)670-2456

사업장명	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노인요양원 성산사랑마을	1명	간호사	09:00~18:00 (주5일)	월225만원
(주)해송케이엔에스	1명	회계사무원	09:00~18:00 (주5일)	월170만원
(주)월드와이드서비스 코리아	1명	영양사	08:30~17:30 (주5일)	월206만원
동흥산업	1명	재활용품 및 폐기물수거원	08:30~17:30 (주6일)	월200만원
일양종합금속(주)	2명	창호 설치·조립원 (용접)	07:30~18:00	월190만원이상 (협의)
(주)새서울레저 골든비치리조트	1명	수질환경기사 (자격증소지자)	08:30~17:30	연2,400만원이상 (협의)
	4명	전기·설비·영선원	교대근무	연2,400만원이상 (협의)
(주)재성정보통신	5명	통신장비설치·수리원	8:30~18:00	연2,160만원이상 (협의)
	2명	영업사원	8:30~18:00	연2,160만원이상 (협의)
	1명	웹 디자이너	8:30~18:00	연2,160만원이상 (협의)
	1명	공무·설계원	8:30~18:00	연2,160만원이상 (협의)

사업장명	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주)골든에스엔씨	14명	객실룸메이드	08:30~18:00 (주6일)	월210만원
	1명	청소원 (로비청소)	시간 협의 (월5회휴무)	월210만원
한반도개발중기	1명	경리사무원	10:00~15:00 (주5일)	월87만원
낙산비치호텔	1명	주방보조원	05:00~14:00 (주5일)	급여 상담후
모정의집	2명	사회복지사	09:00~18:00 (주5일)	월180만원
정다운마을	1명	조리원	3교대 근무 (주5일)	급여상담후
양양어린이집	1명	보조보육교사	13:00~17:00 (주5일)	월83만원

▶ 양양군 일자리지원센터와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수시로 구인, 구직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이달의 추천 일자리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 구인정보이며, 업체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복지신청은 복지로

복지혜택이 필요할 때
복지포(www.bokjiro.go.kr)를 찾아주세요.

-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복지포에서 복지자원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육료·유아학비, 기초연금 등 16개 사업 (2018년 기준)

도움이 필요할 때
복지포(www.bokjiro.go.kr)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 소득·도움을 모를까?나 이웃이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동료인 사연은 집단중 주인공에게 연결됩니다.
- 성인 주 가구 생활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공적지원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지재단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연계해 드립니다.
- 신청된 사연의 진행상황은 홈페이지나 연도폰 문자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www.bokjiro.go.kr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
함께 찾아주세요!**

기간: 2018년 11월 19일 ~ 2019년 2월 28일

나의 작은 관심으로
모두가 행복한 길이 열리는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보건복지부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복지사각지대란?

- 국가·지자체 및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 계층
- 실직, 휴·폐업, 사망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
- 장기, 거스, 연금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 가구
- 돌봄이 필요한 미·노·장애·1인 가구 등

어디로 알려야 하나요?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콜센터(☎129)
- 복지포(www.bokjiro.go.kr) → 도움신청하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간편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급여지원
- 소득기준을 초과하지만 물품 등 맞춤형 지원이 어려운 있는 가구 등의 경우 **물품지원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차등 관리
- 임신서비스 연계 대상자로 우선 선정, 방문 상담 및 후원물품 등 지원

2019년도 양양군 제안 공모

국민 여러분의 귀중한 의견을 들어 양양군 정책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으로 보다 살기좋은 양양을 만들기 위하여 추진하는『2019년 양양군 제안공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모기간 : 연 중
- 자 격 : 전 국민
- 제안과제 : 아이디어 제안
 - 양양군 시책이나 행정제도 또는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아이디어 제안
 - 군정발전 및 예산절감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 제출서식(아이디어 공모제안서)
 - 군청 홈페이지 ⇒ 군민소통 ⇒ 제안마당 ⇒ “국민신문고 바로가기”연계 또는 제안서 다운로드(우편 · 방문접수 시)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 국민제안 ⇒ 제안신청(회원가입 후 신청)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및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 대상 : 300만원 미만의 상금 (금상, 은상, 동상, 노력상 등)
- 방 문 : 양양군청 기획감사실, 읍 · 면 총무부서(문의 ☎ 0336702213)
- 우 편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양양군청 기획감사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2019년 1월
- 신청기간 : 2018.12.17.~2019.1.31.(2018년 4분기분)
- 신청장소 : 읍 · 면사무소 방문 신청 혹은 우편접수
- 신청대상 : 강원도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지원조건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원칙
 -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자를 원칙으로 지원
-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
- 문 의 : 경제에너지과 ☎033)670-2978

2019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 대 상 : 매년 1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인 · 허가등의 면허를 받은 자
- 세 율 : 면허의 종별에 따라 1종 27,000원, 2종 18,000원, 3종 1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 차등 부과
- 납부기간 : 2019. 1. 16 ~ 2019. 1. 31
- 납부장소 : 전국은행·농협·우체국·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산림조합·저축은행
- 납부방법 :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인터넷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 ※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용카드, 통장을 이용 CD/ATM(현금자동입출기)기로 납부가능하며, 타인 명의 세금의 경우도 고지서 상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입출기에서 납부할 수 있음.
- 문의사항 :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 033 - 670- 2148)

강원도 미래농업대학 교육생모집(무료과정)안내

- 교육신청 : 2019.1.2~2.13(농업기술센터 농업인육성)
- 모집인원 : 25명
- 교육기간 : 2019.3.18.~9.5(6개월/주4일/합숙)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육성팀
- 지원자격 : 만 19세 이상 50세 이하
 - 영농정착 의욕이 높고 미래농업 선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춘자
 - 단체생활에 결격사유가 없고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며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교육생 특전
 - 교육비 전액 무료지원 (수강료, 숙식비, 주말귀가 왕복 교통비 등)
 - 전문분야 사업장 현장실습 및 선진 농업국 해외연수
 - 농기계정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 취득 기회부여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정책지원자금지원
- 주요교육내용 : 강원도미래농업교육원 홈페이지 참조
(<http://ares.gangwon.kr/hb/atc>)
- 합격자 발표 : 2019. 2. 28.(목),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육성팀 (☎ 033-670-2337))

양양군치매안심센터 「농한기 경로당 치매예방교실」 운영

양양군치매안심센터에서는 2018-2019년 농한기 치매예방 인지건강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 기 간 : '18.12월 ~ '19.3월 초 (주 1 ~ 2회 운영)
- 장 소 : 프로그램 신청 마을 경로당 14개소(사천리, 서문1리, 포월리, 내현리, 수상리, 동호리, 학포리, 상광정리, 어성전1리, 잔교리, 하광정리, 물치리, 상복리, 전진1리)
- 대 상 : 65세이상 지역주민
- 운영내용 : 두뇌건강놀이 학습 및 인지자극프로그램 운영(교구, 원예, 음악, 미술, 운동, 체조활동 등)
- 문 의 : 보건소 정신건강담당 ☎670-2565, 2984)

2019년 군민정보화교육 겨울특강

접수기간	특강기간	시 간	특 강 내 용
1.7. ~ 1.11.	1.14. ~ 1.25. (월,수,금)	(주간반) 10:00~12:00	- 실생활에 유용한 스마트폰 앱 활용 하기 (인터넷뱅킹, 고속버스표 예매, 건강관리 등)
1.28. ~ 2.1.	2.11. ~ 2.22. (월,수,금)	(야간반) 18:30~20:30	-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정보 검색 하기 - 메신저(카카오톡)앱 활용

- 장 소 : 문화복지회관 3층 컴퓨터정보교실
- 인 원 : 28명(선착순) * 소수 신청시 취소 될수 있음
- 접수방법 : 인터넷 [양양군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교육]-[교육신청]
- 전 화 033-670-2463

우리도
오늘
첫!
사랑의열매
시작한다!

커디너와
사랑이 전사 모는 다고요?

거절하지 않다는 중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활동까지
사랑을 전하는 방법을
제공해드립니다.

당신
지금 사랑하고 있나요?

ARS모금 060-700-0577 기부문의 033-244-1662
계좌입금 농협 203-01-448497 (예금주:강원도교육재단)

한국국제민주기금
Korea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의 소중한 성금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대한 민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수도계량기가 얼었을 경우 ●

- 열이 붙은 수도꼭지 및 배관은 드라이거나 15℃ 정도의 물로 시작하여 점차 뜨거운 물을 사용하여 녹여야 합니다.
- 수도꼭지를 녹였는데 물줄기가 안될 경우는 내부배관이 얼었을 것으로 판단되면 실내 가파른 찬바람을 쐬어내야 얼음이 해빙되는 하도.

수도계량기 동파시 신고

- **가정용 수도계량기**
- 강릉군관수도사업소
(☎ 670-2691, 2381)로 신고
하여 수도계량기 및 교환수로
선납후 교체
- **농·촌 계량기에서 각 세대별로 연결
권 자체 계량기**
- 관내 가옥은 설치업체, 의뢰하여
교체

군민행동요령

영하 5℃ 이하의 추운 날씨에 고속도로면 수도, 차량기
동파괴로 수도관이 파는 경우가 늘어났다.
수도청 등기가 일시 5도록 각 개항에서는 수도차량기
수도관을 보완하여 통로를 예방한다.



☎(033)670-2691, 2381



'새해'
'새마음'
'새인연'
'새풍'으로

2019년에도 양양하세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양은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